

아토피피부염 자녀를 둔 어머니의 질환관리 효능감 관련 요인

이혜정¹ · 손해경² · 김지수³ · 한만용⁴ · 노건웅⁵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¹,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생², 연세의료원 심장웰니스센터 간호사³,
 분당차병원 소아알레르기 호흡기내과 교수⁴, 제주한마음병원 알레르기 클리닉 교수⁵

Factors associated with Disease Specific Self-efficacy of Mothers of Children with Atopic Dermatitis

Lee, Hyejung¹ · Son, Hae Kyoung² · Kim, Ji Su³ · Han, Man Yong⁴ · Noh, Geunwoong⁵

¹PhD, RNC, APRN,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Seoul

²MSN, RN, Doctoral Candidate,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Seoul

³MSN, RN, Cardiac Wellness Center, Yonsei University Medical Center, Seoul

⁴M.D., Division of Allergy & Respiratory Medicine, Department of Pediatrics, CHA Bundang Medical Center, Seongnam

⁵M.D., Department of Allergy Clinic, Jeju Hanmaeum Hospital, Jeju, Korea

Purpose: The disease specific self-efficacy of mothers caring children with atopic dermatitis is a crucial factor for adherence to recommended treatments. This study investigated factors associated with disease specific self-efficacy of mothers of atopic dermatitis children. **Methods:** A cross-sectional study was used. One hundred twenty five mothers recruited from the out-patient clinic of three hospitals completed self-administrative questionnaires, including the disease specific self-efficacy, general parenting efficacy, and severity of atopic dermatitis.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Results:** The degree of disease specific self-efficacy of mother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disease severity, and parenting efficacy. 26.0% of the variance of disease specific self-efficacy was explained by the severity of disease and parenting efficacy. **Conclusions:** Future studies need to focus o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that will help to improve mothers' disease specific self-efficacy as well as parenting efficacy.

Key Words: Atopic Dermatitis, Mother, Self-efficacy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아동의 아토피피부염은 극심한 가려움증과 건조한 피부를 특징으로 하는 재발성의 만성 피부질환으로(Leung & Bieber, 2003), 향후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으로 진행되기도 한다(Bar-netson & Rogers, 2002).

아토피피부염의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Lee, Shin, & Oh, 2008; Purvis et al., 2005), 최근 통계자료에 의 하면 국내 전체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50% 이상이 9세 이하의 아 동으로 나이가 어린 아동에서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보고 되고 있다(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NHIC], 2014).

아토피피부염의 극심한 가려움증으로 인해 아동은 수면장 애나 피로를 경험할 수 있고(Chamlin et al., 2005), 부모에게

주요어: 아토피피부염, 부모, 자기효능감

Corresponding author: Kim, Ji Su

Cardiac Wellness Center, Yonsei University Medical Center,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Korea.
 Tel: +82-2-2228-8540, Fax: +82-2-2227-7723, E-mail: vkimjs@gmail.com

-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김모임 간호연구소의 교수-학생 연구비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음.

- This study was funded by the Mo-Im Kim Research Institute.

투고일: 2015년 12월 9일 / 심사완료일: 2015년 12월 29일 / 게재확정일: 2016년 1월 20일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쉽게 짜증을 내는 등의 심리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한다(Shin, Park, & Oh, 2006). 또한 아토피피부염의 중증도가 높아질수록 아동의 삶의 질이 낮아지고, 또래 관계나 학습, 놀이, 운동 등의 아동의 전반적인 일상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en-Gashir, Seed, & Hay, 2004).

아토피피부염 아동의 어머니는 일반적인 아동의 어머니에 비해 양육 스트레스가 높으며, 아동의 아토피피부염의 중증도가 높아질수록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삶의 질은 저하된다(Yoo, & Kim, 2004). 이는 아동의 질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 저해 요인이 되고 아동의 치료 과정과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Kim, Kim, & Park, 2008). 특히 나이가 어린 아동은 자가 질환관리가 어려워 어머니의 질환관리에 적극적으로 의존해야 하기에 어머니의 질환관리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진다(Kim et al., 2008; Shin et al., 2006).

재발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질환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아토피피부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아동을 일차적으로 관리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중재가 개발되고 있다(Ersson, Latter, Sibley, Satherley, & Welbourne, 2007; Gelmetti et al., 2012; Lee & Oh, 2015; Mitchell, Fraser, Ramsbotham, Morawska, & Yates, 2015). 이들 교육은 질환 및 치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 어머니의 치료지시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 그리고 심리적인 지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Chisolm 등(2010)은 Bandura의 건강행위모델을 적용하여 치료법 적용에 대한 질환관리 효능감을 치료지시에 대한 이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질환관리 효능감은 아토피피부염의 치료법을 포함하여 질환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행위를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어머니의 치료지시 이행을 향상시키는 중재 및 교육의 평가를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다(Ersson, Farasat, Jackson, Gardiner, Sheppard, & Cowdell, 2015; Mitchell, & Fraser, 2011). 위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높은 질환관리 효능감은 자녀의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치료지시의 이행 정도를 향상시키고, 이는 아토피피부염의 중증도를 감소시켜 긍정적인 치료결과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국내의 경우 아토피피부염 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나 일반적인 양육에 대한 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있지만(Kim, 2009; Lee & Choi, 2012), 아토피피부염 아동 어머니의 질환관리 효능감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아토피피부염 아동의 성공적인 질환관리를 위해 어머니의 질환관리 효능감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질환관리 효능감과 관련 요인을 조사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아토피피부염 자녀를 둔 어머니의 질환관리 효능감을 조사하고, 이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아토피피부염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제공할 질환관리 교육 중재 개발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아토피피부염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토피피부염 관리 효능감의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 제주에 소재한 종합병원 3곳의 아토피피부염 전문 클리닉 또는 센터에서 아토피피부염 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의 어머니를 편의표집 하였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전문의로부터 아토피피부염을 진단받고, 알레르기성 질환(비염, 천식) 이외의 치료를 요하는 동반 질환이 없는, 13세 이하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수는 G*Power 3.1.7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크기 .15, 예측변수 10개를 가정하여 양측 검정하였을 때 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 대상자 수는 118명이었으며, 무응답률을 고려하여 총 128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그 중 불완전하게 응답한 설문지 3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125명의 설문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및 질환 관련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아토피피부염 아동의 연령, 성별, 출생순서, 동반질환, 아토피피부염 가족력 유무를 조사하였으며, 어머니의 연령, 학력, 경제수준, 아토피피부염의 한달 치료 비용, 그리고 아토피피부염 치료약제 사용의 편리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2) 아토피피부염 아동의 아토피피부염 중증도

아토피피부염의 중증도는 Charman, Venn과 Williams (2004)가 개발한 Patient-Oriented Eczema Measure (POEM)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아토피피부염 아동의 어머니가 지난

1주일 동안의 가려움증, 건조함, 수면장애, 출혈, 진물, 피부 갈라짐, 각질 등의 7개 아토피피부염 증상의 정도를 0점(그런 적 없음)부터 4점(매일)의 5점 척도에 응답하였고, 총점이 높을수록 중증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harman 등(2004)에서 Cronbach's α 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2였다.

3) 아토피피부염 아동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Choe와 Jung (2001)이 개발한 양육효능감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전반적인 양육 능력,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능력, 학습지도능력, 훈육능력의 5개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37문항으로 각 문항에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총점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였으며(Choe & Jung, 2001),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6이었다.

4) 아토피피부염 아동 어머니의 질환관리 효능감

어머니의 질환관리 효능감은 Mitchell과 Fraser (2011)의 Parental Self-Efficacy with Eczema Care Index (PASECI)를 원 저자에게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해당도구를 Beaton, Bombardier, Guillemin과 Ferraz (2000)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번역과 역 번역 과정을 거친 후 소아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 3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는 4점 만점에 3.95점이었다. 이 도구는 아동의 아토피피부염 관리의 핵심적인 부분인 아토피피부염 관리(15항목)와 아동의 증상과 행동 관리(10항목)의 두 개의 하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 적합한 보습제를 선택하는 것',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 '피부손상이 더 생기지 않도록 아이의 긁는 행동을 관리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에 0점(전혀 할 수 없다)부터 10점(매우 확실히 할 수 있다)의 11점 척도에 응답하게 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질환관리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였고(Mitchell & Fraser, 2011),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4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YUCON-IRB 2013-0049)

과 자료수집이 수행된 C병원(BD2014-026)의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서울 소재의 Y병원, 경기 소재의 C병원, 제주 소재의 H병원 3곳에서 진행하였다. 해당 기관의 전문의는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어머니를 선별하여 연구목적과 자료수집 절차를 간략히 설명한 후, 연구참여에 관심을 보인 어머니는 주 연구자 혹은 연구원에게 연결되어 연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개인정보의 기밀성, 중도하차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어머니는 서면 동의 후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였다.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전원에게 소정의 답례품(10,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어머니와 아동의 일반적 혹은 질환 관련 특성은 평균과 표준편차, 백분율의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 어머니와 아동의 특성에 따른 아토피피부염 질환관리 효능감의 비교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é test를 이용하였다.
- 어머니의 질환관리 효능감의 관련 요인은 특성에 따른 효능감의 비교에서 유의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아동과 어머니의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과 어머니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아토피피부염 아동의 평균 연령은 만 5.59±3.47세였고, 남아는 77명(61.6%)이었다. 형제가 없는 아동은 39명(31.2%)이었고, 천식, 비염, 두드러기와 같은 동반질환이 없는 아동은 47명(37.6%)이었다. 아토피피부염 가족력이 있는 아동은 45명(36.0%)이었고, 아동의 아토피피부염 중증도는 평균 8.16±7.78점이었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6.73±3.86세였으며, 106명(84.8%)이 대졸 이상의 학력이었다. 가족의 평균 월수입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55명(44.0%)으로 가장 많았고, 아토피피부염 치료와 관련된 매월 치료 비용은 86명(68.8%)이 25만원 이하이었다. 치료약제의 사용 편리성에 대해서는 99명

Table 1. Demographics of Participants

(N=125)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Range	
Child's features	Age (year)			5.59±3.47	1~13	
	Gender	Male	77 (61.6)			
		Female	48 (38.4)			
	Birth order	Only child	39 (31.2)			
		1st	32 (25.6)			
		2nd	50 (40.0)			
		3rd	4 (3.2)			
	Comorbid allergic disease	No	47 (37.6)			
		Asthma	12 (9.6)			
		Allergic rhinitis	52 (41.6)			
Urticaria		30 (24.0)				
Family history	No	80 (64.0)				
	Yes	45 (36.0)				
	Severity of disease			8.16±7.78	0~28	
Mother's features	Age (year)			36.73±3.86	28~45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19 (15.2)			
		College/university	86 (68.8)			
		≥Graduate school	20 (16.0)			
	Monthly income (10,000 won)	< 300	14 (11.2)			
		300~< 500	55 (44.0)			
		500~< 700	32 (25.6)			
		≥ 700	24 (19.2)			
	Monthly expenditure for atopic dermatitis management (10,000 won)	< 25	86 (68.8)			
		25~< 50	19 (15.2)			
		50~< 75	6 (4.8)			
		75~< 100	4 (3.2)			
		≥ 100	10 (8.0)			
	Convenience of using treatment medication	Absolutely no convenience	3 (2.4)			
		Almost no convenience	10 (8.0)			
Mostly convenience		99 (79.2)				
Utmost convenience		13 (10.4)				
Parenting efficacy				137.68±17.54	37~185	
Disease specific self-efficacy				7.04±1.50	0~11	

(79.2%)이 '대체로 편리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대체로 편리하지 않다'나 '전혀 편리하지 않다'고 보고한 대상자는 각각 10명(8.0%)과 3명(2.4%)이었다. 양육효능감의 평균은 137.68±17.54 점이었으며, 아토피피부염 질환관리 효능감의 평균은 7.04±1.50 점이었다.

2.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아토피피부염 질환관리 효능감 비교

아동과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질환관리 효능감을 비교한 결과(Table 2), 아토피피부염의 중증도가 질환관리 효능감과 유

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0.20, p=.03$).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치료약제 사용의 편리성이 어머니의 질환관리 효능감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치료약제의 사용이 전혀 편리하지 않다고 응답한 어머니의 질환관리 효능감이 그렇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F=3.14, p=.03$).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질환관리 효능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48, p<.001$).

3. 아토피피부염 아동 어머니의 질환관리 효능감 관련 요인

질환관리 효능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인 아토피피부

염의 중증도, 치료약제 사용의 편리성, 양육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였다 ($F=14.16, p < .001$). 공차한계값(Tolerance)이 0.1보다 커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고, Durbin-Watson 값이 1.71으로 정상분포곡선을 나타내는 기준값인 2와 가까워 잔차에 대한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아동의 아토피피부염 중증도($B=-0.80, p=.04$), 어머니의 양육효능감($B=0.96, p < .001$)이 아토피피부염 아동 어머니의 질환관리 효능감의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26.0%였다(Table 3).

Table 2. Disease Specific Self-efficacy of Mothers by Characteristics (N=125)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 or F or r (p)
Child's features	Age (year)			0.09 (.35)
	Gender	Male	7.00±1.56	-0.37 (.71)
		Female	7.10±1.40	
	Birth order	Only child	6.97±1.59	1.44 (.23)
		1st	7.18±1.33	
		2nd	7.11±1.50	
	Comorbid allergic disease	No	7.26±1.64	1.29 (.20)
		Yes	6.90±1.40	
	Family history	No	6.97±1.44	-0.61 (.55)
		Yes	7.14±1.60	
Severity of disease			-0.20 (.03)	
Mother's features	Age (year)			-0.02 (.85)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7.25±1.41	0.63 (.53)
		College/ university	6.93±1.58	
		≥ Graduate school	7.27±1.24	
	Monthly income (10,000 won)	< 300	7.66±1.96	1.48 (.22)
		≥ 300~ < 500	6.82±1.41	
		≥ 500~ < 700	7.24±1.35	
		≥ 700	6.89±1.54	
	Monthly expenditure for atopic dermatitis management (10,000 won)	< 25	7.03±1.46	0.10 (.98)
		≥ 25~ < 50	7.03±1.72	
≥ 50~ < 75		6.73±0.88		
≥ 75~ < 100		7.14±2.28		
Convenience of using treatment medication	Absolutely no convenience ^a	4.67±0.96	3.14 (.03) a < b	
	Almost no convenience ^b	7.08±1.72		
	Mostly convenience ^b	7.04±1.46		
	Utmost convenience ^b	7.54±1.33		
Parenting efficacy				0.48 (< .001)

a, b: Scheffé test.

Table 3. Factors associated with Disease Specific Self-efficacy of Mothers (N=125)

Variables	B	SE	β	t	p	Tolerance
(Constant)	36.41	26.32		1.38	.17	
Severity of disease	-0.80	0.38	-0.17	-2.09	.04	.97
Convenience of treatment	4.48	5.79	0.06	0.77	.44	.91
Parenting efficacy	0.96	0.17	0.45	5.58	< .001	.93

$R^2=.26, F=14.16, p < .001, Durbin-Watson 1.71$

논 의

본 연구는 아토피피부염을 가진 자녀의 성공적인 질환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머니의 질환관리 효능감을 조사하고 관련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 경기 및 제주 소재의 병원 3곳에서 아토피피부염 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의 어머니 1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어머니의 아토피피부염 질환관리 효능감의 관련 요인으로 임상지표인 아토피피부염의 중증도와 교육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양육효능감이 있었다. 이는 질환관리 효능감이 낮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정서적 지지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아토피피부염 중증도는 28점 만점에 평균 8.16점으로 지역사회에서 관리가 가능한 중등도(moderate) 수준이었다(Charman et al., 2004). 아동의 아토피피부염 중증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질환관리 효능감이 낮아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질환의 중증도가 심해질수록 어머니는 좌절감, 소진감 등이 더욱 커지고, 질환 경과에 따른 죄책감과 우울감 상승, 삶의 질 저하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Kim et al., 2008). 아동의 아토피피부염 중증도가 심할수록 어머니의 삶의 질은 낮아지고 다시 아동의 질환관리 및 중증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Kwon & Seo, 2009; Park, Park, & Lee, 2007; Shin et al., 2006). 또한 기존의 치료방법에 대한 신뢰감이 감소하고 민간요법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Kim & Choi, 2011). 특히, 질환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질환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의 낮은 질환관리 효능감은 아동의 아토피피부염을 더욱 악화시키는 부정적 회환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아토피피부염 중증도 평가에서 아동의 부모는 질환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울음이나 보챌과 같은 관련 행동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치중한다고 하였다(Park et al., 2007; Shin et al., 2006). 중증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그에 따르는 양육자의 부정적인 정서상태는 치료방법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고 민간요법에 의존하게 하는 등 더욱 비효과적인 질환관리를 하게 한다고 하였다(Juniper, 2001). 향후 아토피피부염 중증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양육자가 인지하는 주관적인 중증도 평가의 비교 연구와 양육자의 정서 상태를 매개요인으로 하여 질환관리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양육효능감은 기존의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아동의 질환관

리와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다(Jeong, 2009; Lee & Choi, 2012; Nam, Lee, & Kim, 2014). 본 연구에서 양육효능감은 질환관리 효능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적인 양육효능감보다 어머니의 질환관리와 관련된 신념을 반영하는 질환관리 효능감이 실제 질환관리 행위와 더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데(Ersson et al., 2015; Mitchell & Fraser, 2011), 아토피피부염 아동의 성공적인 질환관리를 위해 중요한 어머니의 질환관리 효능감에 대한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향후 양육효능감과 아토피피부염 질환관리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연구를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토피피부염 치료약제 사용의 편리성이 질환관리 효능감의 관련 요인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치료약제의 사용이 전혀 편리하지 않다고 응답한 어머니의 질환관리 효능감이 편리하지 않다고 응답한 어머니의 질환관리 효능감보다 유의하게 낮아 치료약제 사용의 편리성에 따른 어머니의 질환관리 효능감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보습제와 연고를 발라야 하는 어머니의 역할로 인하여 치료약제 사용의 편리성에 따라 어머니의 질환관리 효능감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Chisolm 등(2010)의 연구에서도 치료약제 사용의 자기효능감이 아토피피부염 치료이행 관련 요인으로 제시되었으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아토피피부염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토피피부염 아동의 어머니에게 치료약제 처방 후 치료약제의 정확한 사용방법에 대한 소개 뿐 아니라 사용법을 직접 시범하는 방법 등을 통해 교육을 강화하여 어머니가 가정에서 치료약제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특성의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병원 3곳에서 모집하였으나 편의표집을 통한 대상자 선정으로 대상자 편중의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환관리 효능감 도구는 국내 연구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해당 도구를 이용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어머니의 질환관리 효능감이 심리사회적인 요인임을 감안하여 어머니의 스트레스나 우울 등의 다른 심리사회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포함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토피피부염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질환관리 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전략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어머니의 아토피피부염 질환관리 효능감 향상을 위해 질환의 중증도와 양육효능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적절한 시기에 아토피피부염 아동 어머니의 질환관리 효능감을 향상

할 수 있는 교육과 지지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 장기간 아토피피부염을 관리하는 어머니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아토피피부염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아토피피부염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질환관리 효능감을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어머니의 질환관리 효능감은 아동의 아토피피부염 중증도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자녀의 아토피피부염을 관리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교육 중재 시 질환의 객관적인 중증도 평가뿐 아니라 양육효능감이나 질환관리 효능감과 같은 인지적 요인에도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Barnetson, R. S., & Rogers, M. (2002). Childhood atopic eczema. *BMJ (Clinical research Ed.)*, 324(7350), 1376-1379. <http://dx.doi.org/10.1136/bmj.324.7350.1376>
- Beaton, D. E., Bombardier, C., Guillemin, F., & Ferraz, M. B. (2000). Guidelines for the process of cross-cultural adaption of self-report measures. *Spine*, 25(24), 3186-3191.
- Ben-Gashir, M. A., Seed, P. T., & Hay, R. J. (2004). Quality of life and disease severity are correlated in children with atopic dermatitis. *The British Journal of Dermatology*, 150(2), 284-290. <http://dx.doi.org/10.1111/j.1365-2133.2004.05776.x>
- Chamlin, S. L., Mattson, C. L., Frieden, I. J., Williams, M. L., Mancini, A. J., Cella, D., et al. (2005). The price of pruritus: Sleep disturbance and cosleeping in atopic dermatitis.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59(8), 745-750. <http://dx.doi.org/10.1001/archpedi.159.8.745>
- Charman, C. R., Venn, A. J., & Williams, H. C. (2004). The patient-oriented eczema measur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a new tool for measuring atopic eczema severity from the patients' perspective. *Archives of Dermatology*, 140(12), 1513-1519. <http://dx.doi.org/10.1001/archderm.140.12.1513>
- Chisolm, S. S., Taylor, S. L., Gryzwacz, J. G., O'Neill, J. L., Balkrishnan, R. R., & Feldman, S. R. (2010). Health behaviour models: A framework for studying adherence in children with atopic dermatitis. *Clinical and Experimental Dermatology*, 35(3), 228-232. <http://dx.doi.org/10.1111/j.1365-2230.2009.03741.x>
- Choe, H. S., & Jung, O. B. (2001). The development of an inventory for measuring the parenting self-efficacy of Korean mothers. *Child Studies in Diverse Contexts*, 22(3), 1-16.
- Ersser, S. J., Farasat, H., Jackson, K., Gardiner, E., Sheppard, Z. A., & Cowdell, F. (2015). Parental self-efficacy and the management of childhood atopic eczema: development and testing of a new clinical outcome measure. *British Journal of Dermatology*, [E-pub ahead of print]. <http://dx.doi.org/10.1111/bjd.14175>
- Ersser, S. J., Latter, S., Sibley, A., Satherley, P. A., & Welbourne, S. (2007). Psychological and educational interventions for atopic eczema in children. *The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3), Cd004054. <http://dx.doi.org/10.1002/14651858.CD004054.pub2>
- Gelmetti, C., Boralevi, F., Seite, S., Grimalt, R., Humbert, P., Luger, T., et al. (2012). Quality of life of parents living with a child suffering from atopic dermatitis before and after a 3-month treatment with an emollient. *Pediatric Dermatology*, 29(6), 714-718. <http://dx.doi.org/10.1111/j.1525-1470.2012.01817.x>
- Jeong, N. O. (2009). Influence of parents' parenting efficacy on health promotion behavior in early childhood.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5(2), 236-244. <http://dx.doi.org/10.4094/jkachn.2009.15.2.236>
- Juniper, E. F. (2001). Using humanistic health outcomes data in asthma. *Pharmacoeconomics*, 19(Suppl. 2), 13-19. <http://dx.doi.org/10.2165/00019053-200119002-00003>
- Kim, E. J., Kim, H. O., & Park, Y. M. (2008). A study on quality of life and economic burden in Korean patients with atopic dermatitis and their parents. *Korean Journal of Dermatology*, 46(2), 160-170.
- Kim, E. S. (2009). *Factors affecting the parenting efficacy in mothers of children with atopic dermatiti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 Kim, M. J., & Choi, M. H. (2011). Knowledge, compliance and quality of life of mothers of children with atopic dermatiti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7(4), 272-280. <http://dx.doi.org/10.4094/jkachn.2011.17.4.272>
- Kwon, I. S., & Seo, Y. M. (2009). Home nursing and quality of life in parents of children with atopic dermatiti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5(4), 401-408.
- Lee, G. M., & Choi, Y. H. (2012). Effects of newborn care education program on child-rearing knowledge, child-rearing stress, and child-rearing self-efficacy of immigrant pregnant women.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3), 561-571. <http://dx.doi.org/10.5932/JKPHN.2012.26.3.561>
- Lee, H. B., Shin, S. A., & Oh, J. W. (2008). New patterns of childhood asthma prevalence in six Asian countries: Comparison of ISAAC phases I and III. *Pediatric Allergy and Respiratory Disease*, 18(1), 70-77.
- Lee, Y., & Oh, J. (2015).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management of childhood atopic dermatitis: An integrative review. *Asian Nursing Research*, 9, 185-193.
- Leung, D. Y., & Bieber, T. (2003). Atopic dermatitis. *Lancet*, 361(9352), 151-160.

- [http://dx.doi.org/10.1016/s0140-6736\(03\)12193-9](http://dx.doi.org/10.1016/s0140-6736(03)12193-9)
- Mitchell, A. E., & Fraser, J. A. (2011). Parents' self-efficacy, outcome expectations, and self-reported task performance when managing atopic dermatitis in children: instrument reliability and validit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8(2), 215-226. <http://dx.doi.org/10.1016/j.ijnurstu.2010.06.008>
- Mitchell, A. E., Fraser, J. A., Ramsbotham, J., Morawska, A., & Yates, P. (2015). Childhood atopic dermatitis: a cross-sectional study of relationships between child and parent factors, atopic dermatitis management, and disease severit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52(1), 216-228. <http://dx.doi.org/10.1016/j.ijnurstu.2014.09.008>
- Nam, H. A., Lee, H. J., & Kim, M. O. (2014). The contribution of competence in parenting: Uncertainty related children's disease, and nursing educational need. *Korean Parent Child Health Journal*, 17(1), 29-36.
-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14, March 26). *Atopic dermatitis*. Retrieved July 21, 2014, from <http://www.nhis.or.kr>
- Park, C. K., Park, C. W., & Lee, C. H. (2007). Quality of life and the family impact of atopic dermatitis in children. *Korean Journal of Dermatology*, 45(5), 429-438.
- Purvis, D. J., Thompson, J. M., Clark, P. M., Robinson, E., Black, P. N., Wild, C. J., et al. (2005). Risk factors for atopic dermatitis in New Zealand children at 3.5 years of age. *The British Journal of Dermatology*, 152(4), 742-749. <http://dx.doi.org/10.1111/j.1365-2133.2005.06540.x>
- Shin, K. O., Park, H. S., & Oh, S. Y. (2006). Analyses on nutritional and behavioral risk factors of atopic dermatitis (AD) in Korean preschoolers.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39(8), 795-800.
- Yoo, I. Y., & Kim, D. H. (2004). Parenting stress and needs of mothers of children with atopic dermatitis. *Korean Journal of Child Health Nursing*, 10(4), 423-430.